



초산모의 영아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희순¹⁾ · 심미경²⁾ · 김태임³⁾ · Norr F Kathleen⁴⁾ · White-Traut C Rosemary⁴⁾ · Kenner A Carole⁵⁾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신성대학 간호과 부교수, 3)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SA, 5)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Oklahoma, USA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Confidence in First-time Mothers of Infants in Their First Year*

Kim, Hee-Soon¹⁾ · Sim, Mi-Kyung²⁾ · Kim, Tae-Im³⁾
 Norr F Kathleen⁴⁾ · White-Traut C Rosemary⁴⁾ · Kenner A Carole⁵⁾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College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4)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SA
 5)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Oklahoma, US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confidence in first-time mothe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94 first-time mothers of babies aged 1-6 months who visited well-baby clinics in 4 hospitals.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arenting confidence level was moderate with a mean score of 3.26(range 1-6). Infant tempera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ternal role confidence. Maternal role confid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aring environmen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50% maternal role confidence. **Conclusions:**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parenting confidence among first-time mothers of infants in their first year are needed to improve maternal perception to infant temperament and reduce parenting stress.

Key words : Parenting confidence, Infant

주요어 : 양육자신감, 영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KRF-2002-042-E0008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심미경(E-mail: simkyung@shinsung.ac.kr)

투고일: 2006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im, Mi-Kyung(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College
 49, Deokma-Ri, Jeongmi-Myon, Dangjin-Gun, Chungna 343-861, Korea
 Tel: 82-41-350-1343 E-mail: simkyung@shinsung.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영아의 행동은 매우 단순하고 비슷하며 환경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자극에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Brazelton & Nugent, 1995). 또한 출산 직후부터 영아 초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발달과정에서 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초기 양육환경은 이후의 아동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erzman & Weins, 1996). 특히 이들 양육환경 중 신체적, 물리적 양육환경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양육환경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발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매우 강조되고 있다(Leyendecker & Scholmerich, 1991).

따라서 영아를 돌보는 양육자는 영아의 개별성과 상호작용하는 개체임을 인식하고 영아의 행동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처음 신생아를 돌보게 되는 초산모들은 영아의 욕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영아와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양육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어머니 역할은 신생아 출산과 더불어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영아의 능력을 어머니에게 인식시키고 영아의 상태와 능력, 발달수준에 맞추어 영아의 행동에 부합되는 어머니의 반응, 즉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경험의 기회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Kim, Shin, Oh, Kim, & Sim, 2005; Kim et al., 2006).

이와 같이 영아 발달 증진을 위한 초기 양육환경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러 감각자극제공을 포함한 양육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교육 프로그램은 출산 후 퇴원 전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관리와 건강문제에 관한 간단한 퇴원교육과 단순히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달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과 모자보건사업도 아동의 발달 평가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영아기 초기의 부모양육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과 관련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산모의 경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머니 역할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나 욕구파악과 관련된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이 낮아(Jung & Han, 1999)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원만한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m, 1998).

양육자신감은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조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혹은 신념으로 정의되기도 하며(Montigny & Lacharite, 2005)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나 상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ross & Rocissano, 1988). Mercer(1981)는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정의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그의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정체감에 알맞은 양육행동을 확립된 일련의 역할로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어머니 역할획득의 실증적인 최적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특성, 영아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제기되었으며 어머니의 우울, 영아의 기질, 사회적 지지 등이 확인되었다(Teti & Gelfand, 1991;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부모역할에 있어서 자신감을 느끼는 어머니는 영아와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는 보다 더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어머니들은 영아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기술과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단성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민감하지 못하고 서투르다. 양육자신감이 낮은 부모는 영아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며 이런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Gross, Fogg, & Tucker, 1995).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자신감과 다른 변인간의 상관관계 연구(Lee, Kang, Park, Hwang, & Mun, 2003; Kang, Kim, & Son, 2004; Kwon, Kim, Kim, & Jang, 2006)와 어머니 교육이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6)가 있을 뿐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자신감 영향요인으로 영아의 특성인 영아기질과 영아반응성; 어머니의 특성으로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환경적 특성으로 양육지를 포함시켜 이를 확인해 봄으로써 양육자신감 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아의 반응성은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웃거나 수유를 잘하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어머니는 신생아의 이런 반응을 자신의 보살핌과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에 민감하다(Bobak & Jensen,

1993). 어머니의 역할은 문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경험을 영향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양육환경은 영아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나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데 양육자신감이 큰 부모는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보아 발달 촉진 양육환경 제공을 양육자신감의 결과변수로 보고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 발달에 있어 초기 양육환경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나 부모교육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초산모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고 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양육 지지, 영아기질, 양육경험, 영아반응성, 가정양육환경, 양육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양육자신감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영아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초산모의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서울, 대전, 대구, 전주에 소재한 4개 대학 병원을 임의 선정하여 예방접종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초산모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서울 소재 병원에서 50명, 대전 소재 병원에서 53명, 대구 지역 병원에서 56명, 전주 지역 병원에서 46명의 총 205명의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9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 양육자신감

양육자신감은 Wolke & St James-Roberts(1987)의 영아돌보기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3문항의 5점 척도로 '나는 아기가 보낼 때 잘 달랜다' 등 역할 수행 정도와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기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역할에 대한 신념, 역할 수행 상의 염려와 걱정 여부 및 도움을 청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를 전문가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 및 아동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 이었다.

●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보고식 질문지로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총 3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PSI는 국내 여러 선행연구(Kim, 1997; Yoo & Kim, 2004)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은 Wolke & St James-Roberts(1987)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척도 중 영아의 불안정한 기질 영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아 기질 도구는 영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묻는 1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불안정하지 않은 것으로 즉, 적응을 잘 하고 쉽게 달래어지며 잘 밀착하는 기질을 가진 영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를 전문가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 및 아동발달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영아양육 지지

영아양육지지 도구는 남편의 지지 도구와 주위사람의 지지 도구를 합쳐서 연구자가 수정보완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두 영역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양육 시 지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5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어렵게 표현된 문항을 확인해 어휘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 남편의 지지 : Taylor의 남편의 지지 척도를 일부 수정한 Bai(1996)의 도구를 기초로 아기양육과 관련된 지지만을 선정하여 총 1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주위사람의 지지 : Pascoe & French(1990)의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지표(Maternal Social Support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된 양육지지를 사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지체계의 구조 및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2이었다.

● 영아의 반응성

영아의 반응성은 Wolke & St James-Roberts(1987)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척도 중 영아의 반응성 영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아반응성 도구는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가 내 몸에 찰싹 달라붙는다', '아기는 또릿또릿하고 주의집중을 잘한다' 등의 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기민하여 반응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를 전문가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아동발달전문가 3인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7이었다.

● 양육경험

양육경험은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기본적인 영아 다루기에 대한 분만 전 경험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아기를 안아본 적이 있다', '우는 아기를 달래본 적이 있다' 등의 아기 다루는 내용의 경험 유무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고 각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를 '쉬움', '보통', '어려움'의 3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최저 점수 0점, 최고 점수 30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경험이 있고 그 일이 쉬운 경험이었음을 나타낸다.

양육경험 도구 개발과정을 보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초산모 5명을 면담한 내용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고 간호학 교수 4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1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문항이나 의미

가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가정양육환경

가정양육환경은 Bradley & Caldwell(1988)에 의해 개발된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Inventory (HOME)를 본 연구자에 의해 자가보고식으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 영아의 연령이 6개월 이하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수용성', '적절한 장난감의 제공', 두 영역을 제외한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발달에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간호학 교수 3인과 아동발달전문가 2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자는 아동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생 4명으로 각 병원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직접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자료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으며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 값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아의 나이는 생후 3-4개월이 34.5%로 가장 많았고 초산모의 연령은 26-35세 사이가 84.5%였다.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 56.7%, 고등학교 졸업이 35.6%였다. 초산모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57.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27.7%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6.8%로 대부분이었으며 초산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0.3%, 직업을 가진 여성이 39.7%였다. 초산모의 56.5%가 계획된 임신을 하였고 43.5%의 초산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Mean	SD	Range
Infant response	3.96	0.80	1-6
Infant temperament	3.64	0.93	1-6
Parenting experience	1.61	0.83	1-3
Parenting support	2.61	0.40	1-5
Parenting stress	2.38	0.51	1-5
Parenting confidence	3.26	0.79	1-6
Parenting environment	0.75	0.14	0-1

초산모의 양육자신감 및 관련 요인의 지각 정도

● 양육자신감, 영아의 기질, 영아의 반응성

양육자신감은 평균평점 3.26점(6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은 평균 평점 3.64점(6점 만점)으로 자신의 영아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며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으로 지각 하였다. 영아의 반응성은 평균평점 3.96점(6점 만점)으로 자신의 영아가 약간 기민한 것으로 인지하였다<Table 1>.

●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지, 양육환경

대상자의 45.6%에서 85.6%가 기본적인 영아 다루는 내용에 관한 분만 전 양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의 어려움의 정도는 평점 3점 중 1.61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쉬운 경험으로 인식) 중간 정도의 어려운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목욕시키기가 0.87점으로 가장 어려운 경험으로 인식하였고 우는 아기 달래기와 아기 잠재우기가 1.33점으로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4점(5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평점 2.61점(5점 만점)으로 역시 중간 정도의 영아양육 지 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환경은 평균평점 0.75점(1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양육자신감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양육변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양육자신감과 영아기질로 영아가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어 지며 잘 밀착하는 기질을 가진 영아로 평가할수록 어머니의 자신감은 높게 나타났다($r=.62, p<.001$).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양육경험이 있고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인식할수록 양육 자신감은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신감이 높을수록 발달 촉진적 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 p<.01$). 또 어 머니의 학력이 높고 양육지지를 많이 받고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발달촉진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양육자신감과 양육환경의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 과, 양육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에게 정서적, 언어 적 반응을 많이 해주고($r=.21, p=.008$) 안전한 놀이 환경 등 환 경조직을 잘 해주는 것으로($r=.18, p=.026$) 나타났다<Table 3>.

양육자신감 영향요인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영아의 반응성, 영아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지, 양육경험, 어머 니의 연령, 영아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여 단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Support	Response	Career	Experience	Temperament	Stress	Confidence	Environment
Parenting support	1.00							
Infant response	.15	1.00						
Academic career	.19*	.20*	1.00					
Parenting experience	-.09	.14	-.02	1.00				
Infant temperament	-.02	.03	.09	.06	1.00			
Parenting stress	-.41***	-.30***	-.21**	-.11	-.17*	1.00		
Parenting confidence	.07	.12	.12*	.30***	.62***	-.39***	1.00	
Parenting environment	.28**	.09	.17*	.08	.08	-.22**	.25**	1.00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scales of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confidence

	Emotional, verbal response	Environmental organization	Mother's participation	Diversity of stimulation	Parenting environment total
Parenting Confidence	.21 $p=.008^{**}$.18 $p=.026^{*}$.08 $p=.302$.08 $p=.326$.25 $p=.002^{**}$

* $p<.05$, ** $p<.01$

적 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중 영아의 기질이 전체 변량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그 외 양육스트레스, 양육경험, 어머니의 연령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들 요인이 양육자신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6%였다. 양육지지, 영아의 반응성, 영아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ing confidence in the subject

Variables	Accumulative R ²	R ²	F	P
Infant temperament		.45	97.20	.000
Parenting stress	.50	.05	60.52	.000
Parenting experience	.54	.04	46.90	.002
Mother's age	.56	.02	37.24	.040

추가분석 : 초산모의 양육 정보요구

양육정보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고 싶은 육아정보를 기술하게 하는 동시에 양육정보 출처에 대한 폐쇄형 질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요구하는 양육정보

어머니들에게 신생아를 출산해서 현재까지 영아를 키우면서 필요로 되는 육아정보가 무엇인지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모두 기술하게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유식의 시기, 종류, 방법, 수유방법 등 영양에 관한 것; 영아가 갑자기 아플 때(특히 열, 구토, 설사 등)의 대처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것; 성장 발달에 관한 것; 안전사고의 유형, 예방, 대처법 등 안전에 관한 것; 예방접종의 시기, 종류, 주의점 등 예방접종에 관한 것; 영아의 기질에 대한 이해의 6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 양육정보 출처

초산모는 영아 양육이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고자 할 때, 대중매체, 강연, 교육책자, 인터넷 검색, 육아비디오, 학교정규 교육과정, 부모님이나 친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육아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었던 산모가 61.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신문이나 잡지(52.1%), 친정부모(51.0%), 양육정보사이트(50.0%)의 순이었다. 교양강좌를 통한 강연으로 정보를 얻은 산모는 28명(14.4%), 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을 통해 정보를 얻은 초산모는 54명(27.8%)이었다. 교육 홍보 책자 이용률은 병원/보건소 소책자가 57명(29.4%), 분유회사의 소책자가 62명(32%)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Source of information about parenting

Categories	n(%)
Mass media	
TV, radio	81(41.8)
Newspaper, magazine	101(52.1)
Etc	14(7.2)
Lecture	
Cultured course	28(14.4)
Special hospital	54(27.8)
Etc	10(5.2)
Educational publications	
Child-care books	120(61.9)
Hospital/health center booklet	57(29.4)
Powered milk company's brochure	62(32.0)
Etc	7(3.6)
Internet search	
Parenting information site	97(50.0)
Counseling site	40(20.7)
Etc	5(2.6)
Child-care videotape	22(11.4)
Regular school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7(3.6)
Junior high school	17(8.8)
High school	32(16.5)
College or university	47(24.2)
Parents, relatives or friends	
Parents in-law	56(28.9)
Parents	99(51.0)
Relatives or friends	25(12.9)

(multiple response)

논 의

영아의 기질과 양육자신감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양육자신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영아의 기질로 나타난 것은 Lee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Gross et al.(1994)는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까다롭게 인지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고 하였으며 Teti & Gelfand (1991) 역시 영아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며, 양육효능감과 양육자신감은 강한 연관이 있고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전반적인 양육자신감에서 보다 더 분화된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효능감으로 바뀐다고 볼 때(Porter & Hsu, 2003)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아의 기질적인 차이는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가 아동에게 그리고 아동의 육구에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영아기질과 양육자신감, 양육자신감과 양육환경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볼

때 영아기질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영아돌보기 자신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영아발달에 적합한 최적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질이 선천적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불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이 기질적인 특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고 또 기질적인 특성을 수정한다는,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빠른 시기부터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파악하여 영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영아기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질은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개인이 독특한 접근을 하게 하는 행동양식으로 아동의 기질과 제공되는 환경 사이에 부조화가 있게 되면 어떠한 기질의 아동에게도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나 개인의 행동방식과 환경적인 기대와 요구가 맞을 때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영아의 어떤 부모들은 혼란스럽고 화가 나며 그들 아동의 행동에 대해 우울하게 느끼며 부모 자신이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반면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까다로운 자녀들을 자기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이고 씩씩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영아에게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응을 하게 되고 가끔 지치는 하나 자녀들을 즐겨 돌본다. 이렇게 부모가 융통성 없이 완고하게 아동을 다루지 않고 아동의 개인적인 기질 특성을 존중해 주면서 아동의 행동을 다룬다면 각 아동은 자신이 개성대로 행동의 문제없이 자랄 것이다. 이런 기질과 양육자의 양육방식간의 조화는 발달 초기에서부터 일생을 통해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개인의 기질과 환경적 요구가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개념이다(Choi, 2004). 이런 기질에 따른 양육방법의 차이들을 양육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양육자신감과 양육환경의 하위영역 중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것이다. 모이상호작용에서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어머니의 반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반응과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등의 촉각적 자극이다. 영아가 소리를 내거나 말로 하면 말로서 반응하고 영아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영아를 자주 어루만지거나 애무해 주는 등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아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일차 돌봄 제공자는 영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헌신하고 배려하며 보호와 안위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편안한 가운데 시각 및 청각적 자극에 영아가 몰입하도록 해주며 편안한 자세로 안고 부드럽게 흔들어주며 미소 짓고 눈 맞추는 행동을 영아와 함께 나누는 환경이어야 한다. 양육자 자신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이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신감 영향요인은 영아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경험, 어머니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신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Lee(1999), Lee(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Lee(1999)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모성역할 획득 과정에서 모성역할 자신감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 역할은 신생아 출산과 더불어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초산모의 경우 양육과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 역할획득의 실증적인 지표로 양육자신감으로 볼 때(Mercer, 1981) 양육경험은 양육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도 양육경험은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양육 지지는 양육자신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양육자신감을 높일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양육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는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아양육 지지에서 측정된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의 아기수유, 달래기, 깨우기, 집안일하기 등 양육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양육자신감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 역할이란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으로 모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의적 속성 및 일련의 양육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인지적 속성의 행동에는 영아 행동 및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유, 안아주기, 옷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등 과업중심적 활동을 말하며 정의적 속성의 행동은 아기의 요구를 인지하고 부드러움과 관심을 베푸는 자세와 태도 및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을 통해 나타나는 애착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환경과 아동의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obak, Jensen, & Zalar, 1985). Mercer(1981)는 이런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정의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그의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정체감에 알맞은 양육행동을 확립된 일련의 역할로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어머니 역할획득의 실증적인 최적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신감이 높을수록 발달촉진환경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발달을 촉진하는 양육환경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영아의 기질에 대한 교육,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양육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발달촉진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추가 분석 내용에서 초산모의 양육정보 출처를 볼 때 비교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전문육아서적을 통한 정보습득이 병원이나 보건소의 소책자를 통한 정보습득보다 높고 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을 통한 정보습득율이 27.8%로 낮은 점을 볼 때 관련 전문기관에서 부모들을 위해 적절한 양육교육내용을 제작하는 것이 요구되며, 강연이나 부모교실을 통해 아기 양육과정에 대한 역할모델을 시범보이는 양육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의 영아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영아의 초기 발달촉진을 위한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과 부모 양육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4개 도시의 대학병원을 방문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초산모 194명이며 양육자신감 관련 요인인 영아의 기질, 반응성, 양육경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환경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양육자신감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아가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어지며 잘 밀착하는 기질을 가진 영아로 평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은 높게 나타났다.
-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양육자신감이 높을수록 발달촉진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촉진 양육환경 중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정서적 반응이 양육자신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양육자신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아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경험, 어머니의 연령이었고 이들 요인이 양육자신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56%였다. 이 중 영아의 기질이 전체 변량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신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초산모의 양육자신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기질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의 기질에 대한 조기 파악과 기질에 적합한 양육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양육자신감 증진에 효과적이라 하겠다. 양육지지는 직접적으로 양육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효

과가 미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양육자신감은 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법 역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양육자신감이 있는 초산모는 영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반응이 증진되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증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양육과 관련된 다른 변수를 포함해 양육자신감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것을 제언한다.
- 양육자신감 증진 프로그램이 발달촉진적 양육환경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i, J. I. (1996). *Construction of a postpartum depress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Bobak, I. M., & Jensen, M. D. (1993).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The nurse and family.* 5th ed. St. Louis: The C. V. Mosby Co.
- Bobak, I. M., Jensen, M. D., & Zalar, M. K. (1985).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The nurse and family.* 3th ed. St. Louis: The C. V. Mosby Co.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88). Using the HOME inventory to assess the family environment. *Pediatr Nurs, 14*(2), 97-102.
- Brazelton, T. B., & Nugent, J. K. (1995).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3rd ed.). London: Mac Keith Press.
- Choi, K. S. (2004). *Developmental psychology.* 6th ed. Seoul: Kyomunsa.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 Nurs Health, 17*(3), 207-215.
- Gross, D., Fogg, L., & Tucker, S. (1995). The efficacy of parent training for promoting positive parent-toddler relationships. *Res Nurs Health, 18*(6), 489-499.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its measurement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Nurs Practitioner, 13*, 19-29.
- Herzman, C., & Weins, M. (1996). Child development and long-term outcomes: A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s and summary of successful interventions, *Sos Sci Med, 43*(7), 1083-1095.
- Jung, E. S., & Han, M. E. (1999).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the primiparas. *J Korean Acad*

- Womens Health Nurs*, 5(1), 79-88.
- Kang, K. A., Kim, S. J., & Son, E. J.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erception, caring-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s own newborn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311-320.
- Kim, D. H. (1997).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normal neonate and low birth weight neonate*. 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im, H. S., Shin Y. H., Oh, K. S., Kim, T. I., & Sim, M. K. (2005). Parenting stress,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cues and child rearing environment of first time moth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4), 415-426.
- Kim, H. S., Oh K. S., Yoo, I. Y., Kim, D. H., Chae, S. M., Jin, J. H., Kenner, C., & Kim, M. J. (2006). Effects of a maternal self efficacy promotion program on maternal confidence and mother infant interactio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2), 189-195.
- Kwon, M, K., Kim, H. W., Kim, N. S., & Jang, J. G. (2006).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3), 314-321.
- Lee, H. K. (1992). *Construction of a maternal role attainment model in primipara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I. H. (199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n mood and maternal confidence of premature's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Y. E., Kang, Y. H., Park, H. S., Hwang, E. J., & Mun, M. Y. (2003).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206-220.
- Leyendecker, B., & Scholmerich, A. (1991). *An ecological perspectives on infant development*. In Lamb, M. E., & Keller, H.(Eds.). *Infant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German speaking countries*(pp. 113-13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m, H. K. (1998). *Effects of demonstration of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on reciprocity between mother and infa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 Res*, 30(2), 73-77.
- Montigny, F., & Lacharite,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 Adv Nurs*, 49(4), 387-396.
- Pascoe, J. M., & French, J. (199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aternal social support index for primiparous mothers. *Fam med*, 22, 228-230
- Porter, C. L., & Hsu, H. C. (2003). First-time mothers' perceptions of efficacy during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Links to infant temperament. *J Fam Psychol*, 17(1), 54-64.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 62, 918-929.
- Wolke, D., & St James-Roverts, I. (1987). *Multi-method measurements of the early parent-infant system with easy and difficult newborn*. In H. Rauh & H. C. Steinhausen (Eds.). *Psychobiology and early development*(49-70). Amsterdam: North-Holland/Elsevier.
- Yoo, I, Y., & Kim, D. H. (2004). Parenting stress and need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4), 423-430.